



▲ 양주지부 회원들(사진 왼쪽부터) 남현중 운영위원, 박종설 간사, 이순철 감사, 김운섭 운영위원, 조운상 지부장, 최동희 전지부장, 심광욱 회원

## 공동처리장 건립으로 제2의 도약 이뤄가는 양주지부

### 취재 - 오유환

서울시와 인근한 정치, 행정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양주지역은 예부터 북한산, 감악산 등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자원이 산재해 있다. 또한 광역교통망 개설에 따른 경기북부의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축산업 산지로도 유명하다.

현재 양주지역에서 현재 150여 농가가 약 17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70여 농가가

지부회원으로 약 9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양주지역의 양돈 전업농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도시화와 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양돈산업의 지역적 이동과 전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조운상 지부장을 비롯, 김행우, 김남강 부지부장, 최재일 총무, 이순철, 민병렬 감사, 김재현, 김운섭, 최동희, 남현중 운영

위원 등 10명의 임원을 주축으로 양돈인들이 단합하고 합심하여 양주시역의 양돈산업을 이끌고 있는 양주시부를 찾아가 보았다.

### 자연순환농업이 어려운 지역여건 극복 노력

양주시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신규 양돈장 설립 뿐만 아니라 이제 양돈업의 입지마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입지 문제 등으로 연천과 철원 등 인근 지역으로 많은 양돈농가들이 이전하기도 했다.

양돈업을 하면서 가축분뇨와 관련한 민원문제는 양돈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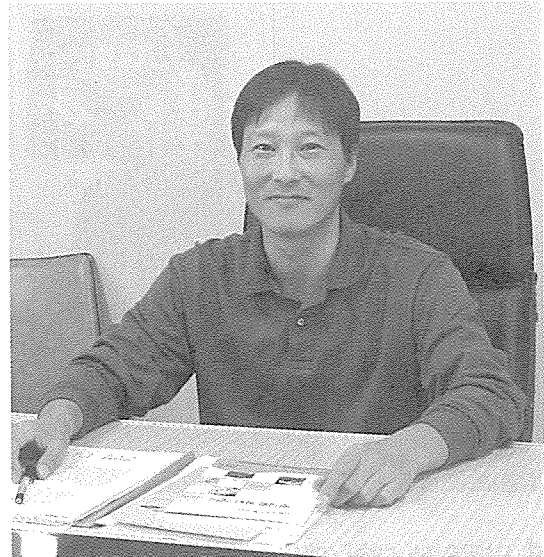
양주시역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농경지가 부족하여 액비화를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과 연계를 통한 분뇨문제 해결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다.

더욱이 해양배출 감축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축산분뇨문제를 해양배출 등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주시청 등과 연계해 분뇨처리를 위한 공동처리장 설립을 통해 분뇨처리 해법을 모색했다.

양주시부는 공동처리장 건립을 위해 먼저 양돈업에 부정적인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양돈업에 대한 홍보하는 한편, 환경개선제 공동구매 등을 통해 민원사례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양돈장 환경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다.

### 공동처리장 마련으로 축산분뇨문제 해법 모색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양돈업에 대한 이해와 공동처리장 설립의 필요성을 알린 결과 최근 공동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은 시의 승인과 함께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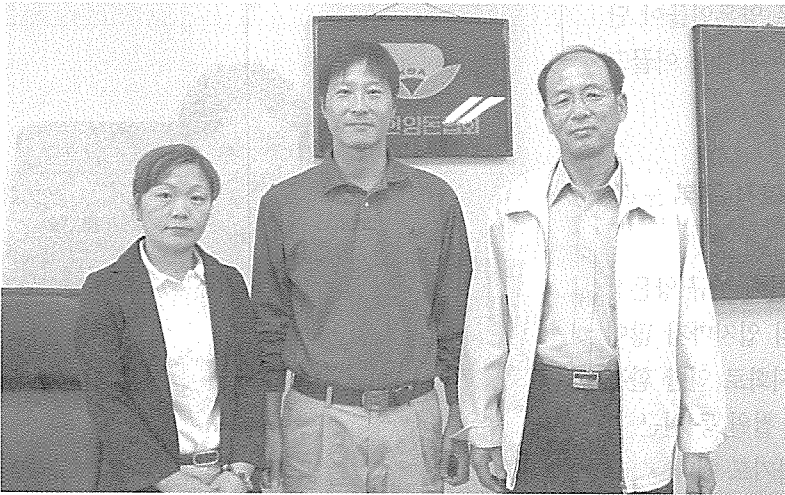


▲ 조윤상 양주시부장

조윤상 지부장을 비롯한 양주시부 양돈인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금년 가을까지 공동처리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중에 완공하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공동처리장이 가동된다면 인근의 양돈농가의 모든 축산분뇨가 이 공동처리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재일 총무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분뇨 처리비용 상승과 도시화는 양돈농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로 환경규제가 더욱 심해졌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동처리장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조 지부장은 “아직 민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통해 양주시역내 양돈농가의 분뇨생산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처리장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 지역 양돈인들이 공동처리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지역양돈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양주지역내 양돈농가의 분뇨생 산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처리장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 지역 양돈인들이 공동처리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지역 양돈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철 간사, 조운상 지부장, 이순철 감사)

**양돈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중요**

양주시부는 공동처리장을 통한 양돈인의 단합을 이끌어 내어 장기계획으로는 양주 양돈단지 등을 조성하여 분뇨처리 문제 등을 공동 대처하고 해결하여 양돈인의 권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조운상 지부장은 공동처리장 건설에는 양주시청 임춘빈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과(과장 차찬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지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축산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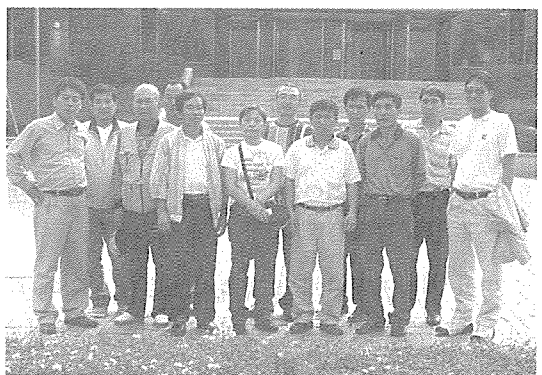
**활발한 교육세미나 양돈인들에게 인기**

양주시부는 매달 월례회와 함께 열리는 정기 세미나는 질병 발생을 대비하고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로 지역농가들에게 최신 질병방역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P에 관련된 질병과 생산성 향상대책과 관련하여 유성환 서경양돈농협 수의사의 “생산성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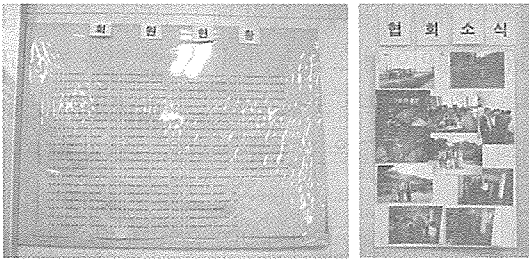
상 대책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월에는 ‘새영농기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종축개량협회 김정일 팀장의 강연을 3월에는 박충원 우성사료 부장의 ‘양돈시황 및 자돈빈혈 및 생존 방안 세미나’를, 4월에는 서울대 박봉균 교수의 ‘돼지 소모성 질환 교육’을, 8월에는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세미나 등 매달 개최되는 등 지역 양돈인들의 높은 참여가 이어졌다.

양주시부의 특징은 회원농가가 아니더라도, 양주지역의 양돈농가라면 누구에게나 소식지를 전달하고 세미나 등 양돈인들이 나누고 공유해야 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지난 9월 19일에도 한국양돈연수원을 견학하여 수세식 돈사와 SCB공법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 양주지부의 특징은 회원농가가 아니더라도, 양주지역의 양돈농가라면 누구에게나 소식지를 전달하고 세미나 등 양돈인들이 나누고 공유해야 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다.

### 다양한 친목도모로 양돈인 단합 이끌어내

양주지부는 매달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세미나와 함께 지역 양돈인이 함께하는 정기 친목의 장을 함께 마련되고 있다. 양주지부는 친목도모를 위한 가족동반 야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양주지역 양돈산업을 보다 젊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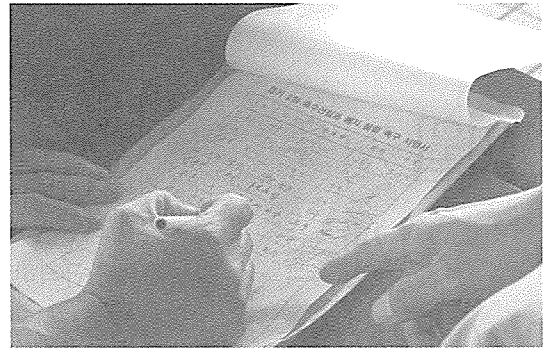
지난 5월에는 산정호수 명성산 등반으로 춘계 야유회를, 7월에는 지부 단합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9월 19일에도 한국양돈연수원을 견학하여 수세식 돈사와 SCB공법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양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 경기도2청 축수산림과 폐지 반대 동참해

취재를 마치고 양주지부를 나서는 길에 최근 경기도2청사의 축수산림과와 농정과를 농축수산산림과로 통폐합키로 결정, 도의회의 승인만을 앞둔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조운상 지부장과 양주지부 회원들은 “가뜩이나 한미FTA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축산농민들은 생업의 불안감에 직면해 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도내 유일한 정책 지원과인 축수산림과를 축소 개편하는 것은 축산인의 생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 경기도2청 축수산림과 폐지 반대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양주지부 회원들

이를 반대하기 위해 15일에는 양주지부 회원들은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 축산관련단체 회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앞에 모여 반대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축산인들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이날 임시회를 가진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김문수 도지사는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하고 도 축산행정을 현행유지키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가뜩이나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의 파고로 축산인들의 고민이 많은 가운데 광역지자체장의 축산업에 대한 몰이해에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주지부는 오늘날 우리 협회의 진정한 목적을 느끼게 하고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양돈**